

野 단일후보 광주·전남 안철수, 전북 문재인 박빙 우세

박근혜 13.9% 두자릿수 지지 확고

다자대결

7명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다자대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39.6%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3.9%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1.2%,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지원 후보가 나란히 0.9%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 무소속 이진개 후보는 0.4%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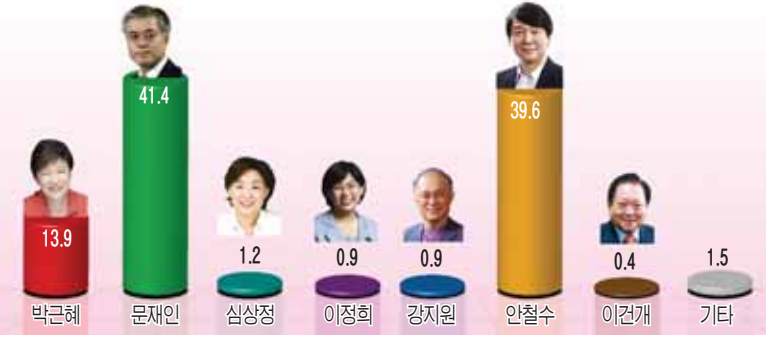
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응답층은 1.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안 후보가 45.6%의 지지율로 38.1%를 기록한 문 후보를 7.5%포인트 앞선 반면, 전북에서는 '문재인(42.6%) : 안철수(33.4%)'로 문 후보가 9.2%포인트 앞섰다. 전남에서는 문 후보(42.6%), 안 후보(41.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문 44.4% : 안 41.8%), 30대(문 43.2% : 안 36.6%), 40대(문 38.7% : 안 36.5%)는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섰고, 50대(문 39.6% : 안 41.8%)에서는 안 후보가 조금 앞섰다. 60대에서는 두 후보가 똑같은 42.7%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연령대별 지지성향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7.6%의 지지를 얻은 문 후보가 35.6%에 그친

■제18대 대선 다자대결



안 47.5 vs 문 47.3% ... 호남 민심 아직 안갯속

단일후보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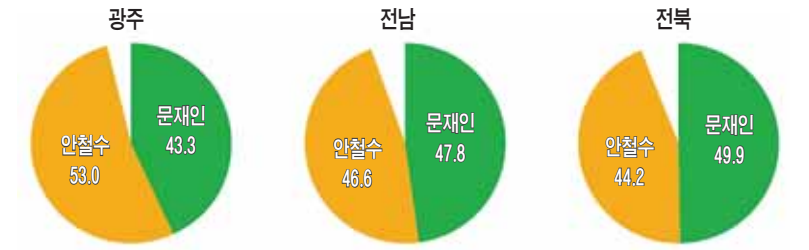
이권 단일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도 적합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단일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47.5%로, 47.3%의 문 후보를 0.2%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결과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안 후보가 0.5%포인트 떨어진 반면 문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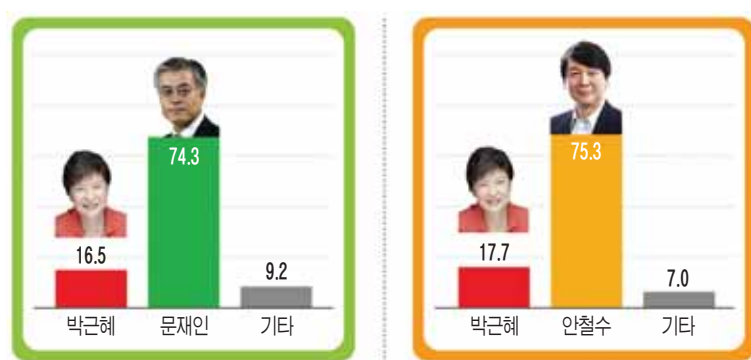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안 후보가 광주(안 53.0%·문 43.3%)에서만 9.7%포인트 앞섰고, 문 후보는 전북(문 49.9%·안 44.2%)과 전남(문 47.8% vs 안 46.6%)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안 후보를

■지역별 이권 단일후보 경쟁력



문 74.3 vs 박 16.5% ... 안 75.3 vs 박 17.7%

■제18대 대선 양자대결



박 60대 이상, 문·안 50대 이하서 높은 지지

양자대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맞대결할 경우, 호남지역 유권자의 74.3%는 문 후보를, 16.5%는 박 후보를 각각 지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는 '광주(75.7%)·전남(75.2%)·전북(72.4%)'순으로, 박 후보는 '전북(19.9%)·전남(15.5%)·광주(13.1%)'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문 후보는 50대 이하에서 70~8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

었지만, 60대에서는 64.7%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박 후보는 60대에서 23.3%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또 박 후보는 유선전화 응답층(14.0%)보다 휴대전화 응답층(18.9%)에서 4.9%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맞대결할 경우, 75.3%의 지지를 얻은 안 후보가 17.7%의 박 후보를 57.6%포인트의 큰 격차로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광주(82.2%)·전남(74.5%)·전북(70.9%)'순으로, 박 후보는 '전북(21.9%)·전남(17.3%)·광

주(12.8%)'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안 후보도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70~80%대의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60대에서는 문 후보와 똑같은 64.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60대에서 24.0%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박 후보는 유선전화 응답층(14.5%)보다 휴대전화 응답층(20.9%)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안 후보는 유선전화 응답층(78.4%)보다 휴대전화 응답층(72.2%)에서 지지율이 낮아졌다.

문재인 남성, 안철수는 여성 지지도에서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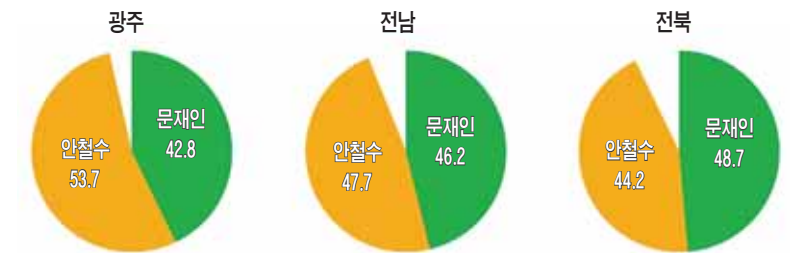
단일후보 적합도

민중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결과와 안철수 후보가 48.0%로, 46.2%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2.2%포인트, 95% 신뢰수준) 내에서 1.8%포인트 앞서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지역별로는 안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문 후보는 전북에서 우위를 보였다. 안 후보는 광주에서 53.7%를 얻어 문 후보(42.8%)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였고, 전남에서는 47.7%로, 문 후보(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지역별 이권 단일후보 적합도



7%로, 문 후보(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반면 문 후보는 전북에서 48.7%를 얻으며 안 후보(44.2%)를 오차범위 밖인 4.5%포인트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문 후보가 30대(48.3%)에서만 앞섰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문 후보를 앞질렀다.

특히 안 후보는 유선전화 응답층에서 48.8%로, 문재인 후보를 3.6%포인트 앞섰지만, 휴대전화 응답층에서는 문 후보(47.2%)에 비해 근소한 차이인 0.1%포인트 앞섰다.

지지성향에서는 문 후보가 민주당(57.1%)과 진보정의당(54.2%) 지지층에서 앞섰고, 안 후보는 무당층(71.8%)과 통합진보당(52.4%)에서 앞섰다. 문 후보는 남성(49.5%)에서, 안 후보는 여성(49.9%)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58.8%로 급락 ... 새누리 12.6%로 경중

지지정당 없다 24.1% ... 10명 중 2명 넘어

정당 지지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뒷받침 호남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11 총선을 전후해 7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그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분당사태까지 치달았던 통합

민주당은 뒤늦게 창당한 진보정의당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이번 조사결과 민주당은 58.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른 정당들을 앞섰다. 전 연령층에서 50%대의 고른 지지를 보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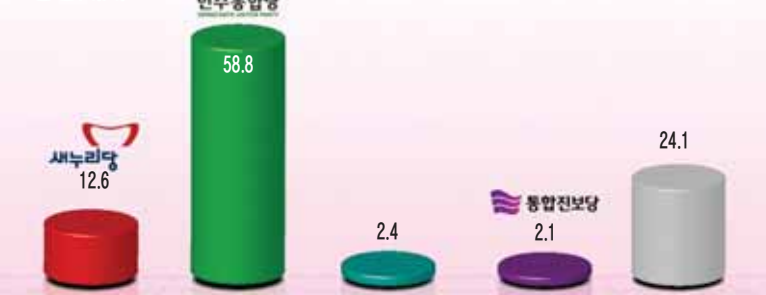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전남이 61.7%로 높았고, 전북 57.8%, 광주 55.9%였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광주·전남에서 70%에 육박했던 지지율이 최근 몇 개월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월 광주일보 여론조사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67.2%였으며, 지난 4·11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정당지지도(광주 68.9%·전남 69.6%·전북 65.6%)도 70%에 육박했었다.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모바일 투표 방식 등 경선물에 반발한 일부 경선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이탈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사에서 12.6%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상승한 것으로, 지난 4·11 총선 당시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정당지지도



상승했다. 지난 6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9.7%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10.9%, 전남 11.2%, 전북 15.5%였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8.7%, 19세·20대 12.4%, 50대 12.0%, 40대 10.4%, 30대 7.3%였다.

이어 진보정의당이 2.4%의 지지를 얻었으며, 통합진보당은 2.1%에 그쳤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임박했지만 '기타,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응답자는 24.1%로, 지난 6월 조사때 17.7% 보다 되레 늘어났다. 10명 중 2명 이상이 무당층으로, 기존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유선전화·휴대전화 지지율 차이 없었다

절반씩 반영 ... 오차범위 내 차이 그쳐

그동안 유선전화 여론조사와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차이가 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주일보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쳐, 별다른 변별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실제로 다자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민주당 단일후보 유선전화에서 42.6%, 휴대전화에서 40.2%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유선전화에서 40.7%, 휴대전화에서 38.5%의 지지율을 나타내 모두 2% 내외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단일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문 후보는 유선전화 47%, 휴대전화 47.7%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안 후보는 유선전화 48.2%, 휴대전화

46.7%의 지지율을 보였다.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문 후보는 유선전화 45.2%, 휴대전화 47.2%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안 후보는 유선전화 48.8%, 휴대전화 47.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유선전화 조사와 휴대전화 조사가 별다른 변별력을 보이지 못한 것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정치 전반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는 "여론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대선 전반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별다른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여론조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유선전화는 아무래도 노년층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안 후보가,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문 후보가 미세하게 유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빛의만평

-김종두



국민이 짜증내면 그랜 끝!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조사 어떻게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실시했다.

호남의 민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시켰으며, 기존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에서 휴대전화까지 포함시켜 진행한 것이

단일화 협상 중단 시점인 16·17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

특징이다.

조사 대상은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2012년 10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유권자 수 비례 무작위추출을 통해 ARS(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의 표본 수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각 1000명씩 2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다. 응답률은 평균 9.1%이다.